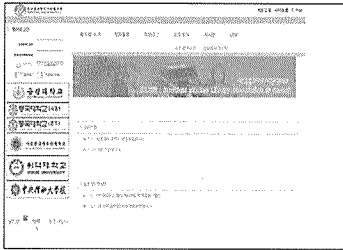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김중철 _ 간사




<http://www.blank.or.kr>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이하 불도협)는 2004년 2월 6일에 불교학과를 개설한 5개 대학 6개 대학도서관이 모여 발족한 기구이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있었던 창립총회에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인숙 관장을 회장으로, 감사에는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전인우 원장을 감사로 선출하고, 간사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김중철 팀장을 임명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불교학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불교계의 기대 속에 창립한 불도협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 불교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주도서관,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불교계 유일의 대학원 대학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이 회원 도서관이다.

불도협의 창립 목적은 불교학 자료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불교학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포교에 기여함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불도협은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사찰도서관, 불교 관계 언론사 도서관, 교양 불교 대학 도서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말 그대로 모든 불교 관계 자료를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 도서관의 역량 강화와 사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1년에 2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의회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현재 각 회원 도서관간에 '상호대차 협약서'를 체결하여 회원 도서관간의 자료 교환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2004년 3월 26~27일에는 대전에서 제1차 실무위원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0월 30~31일에는 충북 단양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 도서관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학 담당 사서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지 창간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하였다. 이 창간호에는 회원도서관의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다음호부터는 회원의 논문과 불교학 관련 자료를 많이 실어 불교학 사서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www.blank.or.kr)는 2005년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여 불교학 연구와 포교의 가교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불교계와 도서관계의 모범적인 단체로 자리잡아서 불교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문의 : 간사 김중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전화 02-2260-3454, 주소 : (100-715)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도서관 내, e-mail : kjchul@dgu.ac.kr]

(“알아봅시다”는 2004년의 “도서관분야 NGO를 찾아서” 코너를 변경한 것으로, 도서관·책·독서와 관련된 모임을 소개합니다.)

알아
봅
시
다

우리책 사랑모임

김남중 _ 총무


〈우리책 사랑모임〉은 우리 어린이와 부모 독자들에게 우리책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어린이책 분야는 '90년 말 부터 2000년 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예쁘고 다양한 책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다. 또 근래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 수출이 되고 있는 어린이책도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유명한 어린이책 상을 수상하는 국내책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책이 많아지고 좋아졌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대형 서점의 그림책 코너를 살펴보면 진열된 대부분의 책들이 외국 그림책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100년 이상 오래된 그림책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책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책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세상과 만나는 '창'으로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발점이다. 우리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이 우리의 정서를 더 잘 담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터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같은 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작가의 그림책을 서점에서 따로 진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도서관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까운 도서관을 가서 어린이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오래된 책들만 구비되어 있으며 있는 책도 요즘 아이들의 독서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책 사랑모임〉은 '우리 아이에게 우리 책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어린이책 운동을 하고 있다. 동화작가, 독서운동가, 어린이전문서점, 출판사 편집자 등 10여 명이 모여 2004년 봄에 모임을 시작하였다. 우리그림책 전시회 기금마련을 위해 2004년 11월에 일일호프를 열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사직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우리 그림책 400여 권을 모아 연도별로 정리한 전시회를 열었다.

2005년에도 우리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아직은 참여 인원도 많지 않고 다들 시간을 쪼개어 봉사를 하는 실정이라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책 사랑모임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책을 읽히는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로 키워내는 운동입니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고 키워 나가는 운동입니다.

[문의 : 우리책 사랑모임 총무 김남중, 전화 02-2635-1400, 핸드폰 011-687-6129, e-mail : knamjung@hanmail.net]



〈우리그림책전시회. 2004년 12월,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